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중국의 민낯을 보여 주다

관련 기사 3, 4면

프랑스 노동자들,
세계 노동계급의
선두에 서다

5, 6~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EU 무역전쟁과
새우등 터지는 영국

5면

잠재력과 동시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 르노삼성
파업

9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 대폭 증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악화된 여성의 처지

2면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12면

서평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밀레니얼은 왜 가난한가》

10, 11면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과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차별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처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대폭 증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악화된 여성의 처지

정진희

1월 15일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부총리 홍남기가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이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의 65퍼센트 이상이 단시간 노동이었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여성 일자리에서 시간제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2019년 8월 여성 시간제 노동자 수는 231만 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7.1퍼센트나 증가했다.

합동브리핑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여성들이 육아·가사와 취업을 병행하고자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고, “우리 나라 단시간 근로자 대부분이 추가근로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시간 일자리 확대가 일자리 질 저하가 아니라고도 얘기했다. 부총리 홍남기는 앞으로 단시간 노동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이미 여성 노동자의 22.2퍼센트가 시간제 노동자이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기관, 콜센터 등 많은 곳에서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적 정책을 펼치며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 왔고, 그 일부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다. 임금 비용을 줄이려는 사용자들의 공세 속에서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 수가 지난해 8월 사상 최대인 300만 명을 넘어섰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일자리에서도 시간제가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시간제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간제 노동자의 73퍼센트가 여성이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는 착취 강화와 함께 차별도 지속·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차별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지만, 이것은 양육 등 돌봄 부담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자본주의 사회 구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

고 양육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주로 여성이 시간제 노동을 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2018년 말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률은 25퍼센트에 그쳤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육아 정책 1순위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지만 '성평등'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보육 확충은 더디기 짝이 없다.

남편의 실직이나 저임금 때문에 부족한 가계 수입을 보충하고자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중년 여성들도 많다. 구할 수 있는 게 시간제 일자리뿐이어서 그 일을 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마구 늘리고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의 말과 달리, 많은 여성 시간제 노동자들이 전일제 전환을 희망한다. 지난해 11월 전국 여성노조가 여성 시간제 노동자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퍼센트가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하길 원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이고 여러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이다.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87만 원에 불과하다. 또, 많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시간제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6.1퍼센트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20퍼센트가 안 된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전일제에 비해 임금과 승진 등에서 여러 차별을 받는다. 심지어 식대·교통비도 “시간비례 원칙”에 의해 차별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과 임금 협약을 맺으면서 시간제 노동자들의 교통비를 전일제의 반만 지급하기로 해, 시간제 노동자들의 원성을 샀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짧은 노동시간 내에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무보수로 초과노동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여성을 노동시장에 더 많이 끌어내고자 2014년부터 확대된 초등돌봄교실은 8시간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 4시

간 일자리를 대거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현재 초등돌봄전담사의 80퍼센트가 시간제다.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정리, 행정 업무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제 전담사 5명 중 4명이 무보수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도 86퍼센트가 하루 4.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다. 시간제 전화상담원들은 상담전화가 폭주하는 1~3월이나 매주 월요일과 휴일 다음 날에는 반나절 동안 전화 100~120통을 받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성대결절·이명 증세 등에 시달린다.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청소하느라 녹초가 된다. 일이 많아서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가야 한다.

투쟁

시간제 일자리가 열악하다고 해서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싸움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도 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투쟁해 왔다. 지난해 초등돌봄 전담사, 민간위탁 콜센터 전화상담원, 대학 청소노동자 등 여러 부문의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싸웠다.

서울시교육청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노동시간 연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88일간 천막농성을 벌였다. 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안양고 객상담센터지회는 직접고용과 차별금지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이틀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도 지난해 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해 투쟁에 나섰다.

이런 투쟁들로 처우가 약간 개선되는 곳들이 생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해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 해고위험에 맞서야 하는 곳들도 있다.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투쟁이 일어나면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해 노동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서울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중국의 민낯을 보여 주다

이정구

이 기사는 1월 23일에 발행한 기사를 개정·중보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2002년 말에 발생한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을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29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6062명이고 사망자수는 132명이다.

중국만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5974명)는 사스 확진자 수(5327명)를 이미 넘어섰다. 검사를 받고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의심 환자가 9239명이고 확진자 가운데 1239명은 중증이다. 확진 환자와 접촉해 관찰 대상인 사람이 6만 명이나 된다.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주로 중국에 집중돼 있고 사망자도 중국 본토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전 세계로 확산돼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한다면 정말 전염병의 대창궐이 도래할 수도 있다.

2002년 사스가 확산될 때 유명해진 호흡기 질병 전문가 종난산은 28일인 화요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7~10일 뒤에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뒤에는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사태는 더 심각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한 달 보름 만에 중국에서 확진자 6000여 명이 발생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더욱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초입 단계이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거대도시에서의 질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아직 절정이 아니다

사람 사이의 접촉으로 전파되는 게 확실한 데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잠복기에도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사람들은 검역에서 제외된 전파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잠복기는 평균 4~5일, 최대 14일까지 된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의학부 공중보건대학원의 닐 퍼거슨 교수 연구팀은 “2월 4일쯤 우한 한 곳에만 19만 명의 감염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콩대 전염병역학통제센터 가브리엘 링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오는 4~5월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도매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와 중간 매개체에 대한 조사 연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박쥐, 밍크, 뱀 등 다양한 동물들이 거론됐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2019년 12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해 지금까지 이르

는 50여 일 동안 중국 당국이 보인 모습은 안이함과 뒤늦음 그 자체였다. 그 때문에 중국 당국은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8096명이 감염됐고 774명이 죽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발병 사실을 은폐하는 데 더 급급했고, 그렇게 5개월을 허비한 결과 초기 대응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다.[관련 기사 ‘사스 공포와 이윤 체제’(〈격주간 다함께〉, 2003년 4월 30일)]

중국 당국의 안이한 대응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초기에 중국 당국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추며 확진자 수를 축소 보도했다. 2020년 1월 19일 영국의 한 대학 연구소는 폐렴의 확산 속도를 고려했을 때 확진자가 17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당시 중국 정부의 확진자 수는 198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발병 초기에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이때문에 우한을 통제해 전염 확산을 막을 시기를 놓쳤다. 그 뒤에도 SNS에 관련 글을 올린 중국인들을 “괴담” 유포 혐의로 심문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등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에 더 급급했다.

뒤늦게야 중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해서 감염 환자가 중국 전역에서 급속히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독성이 2002년 말의 사스 때보다 강하지 않다고 하지만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면 사망자도 그에 따라 늘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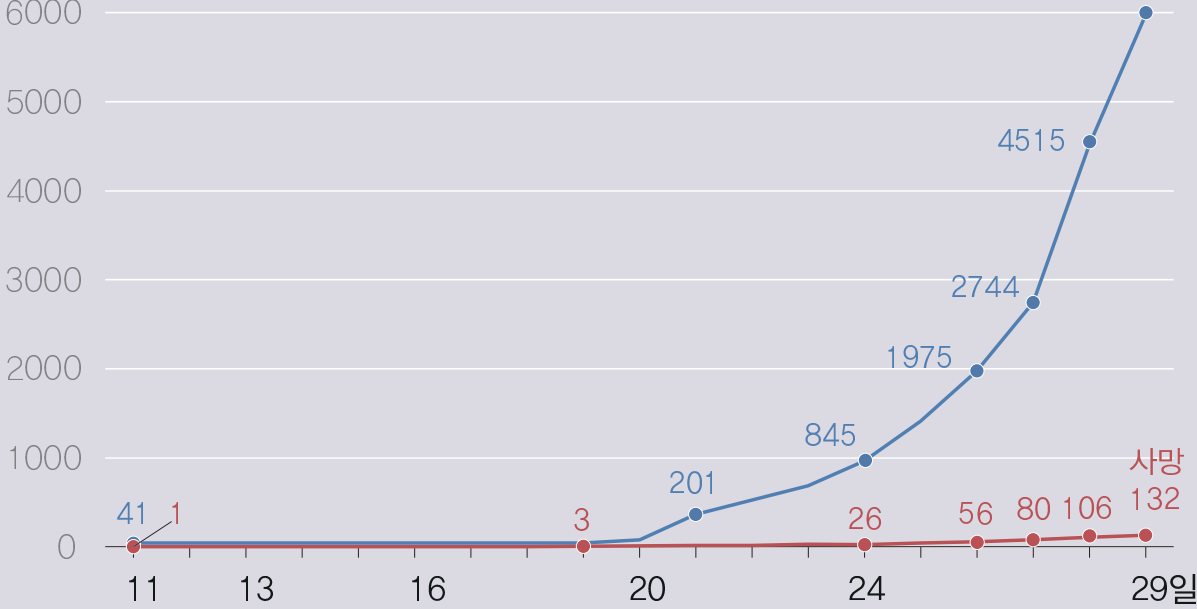
2002~2003년에 창궐한 사스를 계기로 중국의 공중위생과 전염병 예방, 통제 수준이 개선되긴 했다. 그러나 치명적 전염병에 대처하는 데서는 여전히 부실하다. 2003년 이후 중국 경제 규모가 8배나 성장해 세계 2위로 올라선 것을 감안하면 정말 어처구니없다. 그 대단한 경제 성장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소수 지배자들을 위한 것임을 새삼 확인시킨다.

중국에서는 흑사병으로 사람이 숨진 사례도 2014년 이래 여섯 건이나 있었다. 그럼에도 중국 보건당국은 쉬쉬하다 나중에서야 흑사병 발병 사례를, 그것도 축소 보도했다. 흑사병은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죽게 만든 공포스러운 전염병이지만 기본적인 영양과 위생 상태, 항생제와 보건 체계만으로도 통제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정복했다고 여긴 병이다.

보건·의학 전문가들은 전파 속도에서 흑사병보다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중국에서 확산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에든버러 대학의 마크 율하우스 교수는 인구 규모나 밀집도 등으로 봤을 때 중국 같은 곳에서 심각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종코로나 확진 · 사망 추이

중국 내 공식 집계 추이(누적), 0시 기준



자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애먼 박쥐, 밍크, 뱀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음식 식재료에 대한 규제 완화, 위생·보건 시설 미비, 유전자 조작 농산물, 부적절한 사료를 통한 육식 고기류 생산 등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돼지에서 비롯된 것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특정 야생동물을 한두 차례 먹는 데서 바로 생겨난 게 아니라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농업기업들과 이런 사회적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로 봐야 한다.

편견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우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말과 행동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기에 한국에서는 이런 주장이 중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아닐지라도 편견이나 비하 발언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인들에 대한 이런 비하나 편견은 서방 국가들에서 아시아인이나 유색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부추길 수 있고 또 극우들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중국인의 상점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일도 있었다. “더러운” 중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를 전염시킨다는 편견 때문이다. 이런 편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1854년에 미국의 《뉴욕 데일리 트리뷴》은 중국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미개하고 불결하며 더럽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중국 자본주의 체제이다.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한국에서도 경험했듯 이윤 중시 체제의 문제는 중국만의 것도 아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의 안이한 초동 대응, 비위생적인 공공시설, 과밀한 주거 환경, 게다가 빈부격차 확대까지, 이 모든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최적의 조건으로 보인다.

중국 속담에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民以食爲天)는 말이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멜라닌 분유 파동, 화학조미료로 만든 계란 등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들의 불법 행위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려고 기업주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왔다(그럼에도 지난해 중국 경제는 29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중의 공공 보건에 돈을 쓰는 데에는 인색한 자본주의 중국의 민낯을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볼 수 있다

박쥐는 최근 발병한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구조를 조사해본 결과 사스와 메르스는 박쥐가 보유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각각 사향고양이와 낙타를 거쳐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비슷한 바이러스가 제3의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박쥐가 애당초 많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살아간다고 설명한다. 독특한 면역체계 덕분에 이런 바이러스들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이 변하면서 가축들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났다고 본다. 많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그렇듯이 가축을 거친 박쥐 유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되기 쉬운 상태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그러나 진정으로 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다. 이때부터는 박쥐 탓도 낙타 탓도 할 수 없다. 사회가 감염병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용어 설명

감염병과 감염증

정부의 감염병 분류 체계에서는 감염으로 생기는 질병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감염병'을 사용한다. 특정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병을 지칭할 때에는 '감염증'을 사용한다. 예컨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제4급 감염병'에 속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처럼 병원체 이름에 '병'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미국의 대이란 압박 반대한다
- ★ 지난번 파병 반대 운동: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들 중심으로
-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1인 시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윤 우선주의 체제가 낳은 재앙

장호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武漢)시의 상황은 암울하다. 중국 중앙정부가 의료진 수천 명을 급파했지만 상황은 나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의 도시 15곳이 전면 혹은 부분 폐쇄됐는데 이 지역에 사는 인구만 5850만 명이나 된다.

폐렴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은 커녕 오히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또 다른 집단 발병지가 생기면 이런 집중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우한시 전역을 봉쇄하고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우셴왕 우한시장은 이미 우한 주민 중 500만 명이 빠져나가 현재 900만 명 정도만 시내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사스 사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크게 늘어났지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났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위생 설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는 한국(2.3명)보다도 한참 적다.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2.74명으로,



1월 29일 서울역 까딱하면 한국에서도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열악하기로 유명한 한국(6.91명, 활동 간호사 수)의 절반 수준이다.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도 5.72개로 한국의 12개보다 적다. (OECD 나라들의 평균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5개 수준인데 이는 1990년대 초 7개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1990년대 내내 진행된 신자유주의 복지 삭감의 결과다.)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이런 감염병에 완전히 무대책으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 시설이 대부분 도시

에 집중돼 있어 농촌으로 병이 확산될 경우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시골은 분명 우리가 고도로 주목하는 지역입니다.”(펑즈젠 중국 질병통제센터 부주임, 중국국제방송)

물자 부족도 심각하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사재기에 나선 데다 교통 통제로 보급도 원활치 않다. 왕장펑 공산총국 부국장은 우한시에서 일회용 방호복이 매일 10만 개씩 사용돼 왔지만 공급량은 하루에 3만 개밖에 안 돼, 머지않아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방호복 5만 개를 매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환자들이 방역

망을 “뚫고” 돌아다닌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이다. 아직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피해 이동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라는 자연 현상을 대형 재난으로 키운 것은 중국 정부 자신이다.

방호복

바이러스의 최초 진원지를 두고 박쥐, 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의 식품 위생 상태를 문제의 진정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들도 많다. 기본적인 위생 장비는 고사하고 손씻기나 분리 보관 같은 기본적인 조치들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잇을 만하면

각종 첨가물 사건이나 식품 오염 사건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중국에서 식중독은 여전히 흔한 병이다. 중국인들의 77퍼센트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식품 안전”이라고 답할 정도로 중국 사회 내부의 불안도 크다.

이런 상황을 단기간에 개선하려면 대규모 투자와 교육,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낮아지는 성장률에 골머리를 썩는 중국 정부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꾸려 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조치가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임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것도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이윤 중심 체제가 이번 재앙의 핵심 원인이라고 봐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철벽방어 중?

한국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과 병원 위생 관리에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에서는 별 개선이 없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 지정 전문 격리시설은 29개 병원, 161병실 198병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의 1.5배 정도이다. 현재 확진환자 4명에, 격리했던 유증상자만 112명이었던 것만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확진자가 늘어났을 경우 급방 부족해지는 병상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1월 2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성명)

검역 절차가 강화됐지만 인력은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검역관들이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증상이 의심되면 콜센터로 전화하라고 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통화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가장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병실에 상주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전체 70만 개 병상 중 24만 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병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까지 4만 2000여 개에 지나지 않는다. 수익에 민감한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와 간호 인력 부족, 정부의 투자 부족 때문이다. 심지어 운영되고 있는 병상도 대개 혼자 거동이 가능한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환자가 거동이 어려워지면 내보내거나 보호자를 불러들이는 일도 흔하다.

이처럼 병원들이 위태롭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감염자가 늘면 격리 치료는 물론이고 다른 병원 기능에도 차질이 생긴다.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나라에서는 사실상 감염 의심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일도 적잖이 벌어질 수 있다. 극소수의 공공병원들은 이미 밀려드는 환자라 문의로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 중국을 한심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감염병

세계의 더 발전한 지역에서도 위험은 커지고 있다. 장기화된 경제 위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건 예산이 삭감되고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감염병이 번지는 데에 필요한 불쏘시개는 차곡차곡 쌓여 왔다.

미국에서는 질병통제센터 예산이 2010년 108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66억 달러로 삭감됐다. 세계보건기구의 예산은 2016~2017년에 51억 달러에 그쳤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 감염병 환자는 크게 늘었다. 이번 겨울에 미국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970만 명이나 발생해 최소 4800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신종 감염병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

21세기 들어 가속화된 산림 파괴와 기후 변화는 야생 동물의 서식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던 박쥐와 가축이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

다. 합성 사료와 유전자 조작 곡물, 항생제로 뒤범벅이 된 공장형 축산 농장은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저항력을 획득하는 훈련장이 되고 있다. 10년 넘게 전쟁을 겪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전쟁이 본격화하면 이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50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지금은 그때보다 세계적 수준에서 사람들의 접촉이 훨씬 많다. 반면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격리 등)은 당시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 경쟁 논리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 과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분리해 백신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바이러스를 확인하면 한두 달 안에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협력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사스 때도 협력하지 않았다.)

호주의 한 연구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홍콩대 위안귀용 교수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임상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상용 단계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1년은 소요된다.

제약회사들은 충분히 이윤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조건, 즉 대재앙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백신 개발에 뛰어들지 않으려 한다. 사스 당시에도 “주로 19세기 과학에 기원을 두고 있는 공중보건 활동과 임상적 감염 통제 조치들을 적용한 끝에 사스를 제압할 수 있었다.”(마이크 데이비스,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조류독감》)

이 정신 나간 체제가 근본에서 바뀌지 않는 한 신종 감염병의 충격은 주기적으로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프랑스 대파업 7번째 집중 행동

파업과 시위가 프랑스 전역을 휩쓸다

찰리 김버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1월 24일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업과 시위는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공격에 맞선 투쟁이 시작된지 5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 수백만 명은 투쟁 태세가 확고하다.

1월 24일은 7번째 집중 행동의 날이었다. 파리고통공단(RATP) 무기한 파업이 종료되고 무기한 철도 파업이 약화된 뒤에 잡힌 일정이었다. 그러나 집중 행동의 날 당일에는 파리고통공단과 프랑스국영철도공사(SNCF) 모두 [파업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교사, 보건 노동자, 정유소 노동자, 항만 노동자 등이 대규모 행진에 함께했다.

35~4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파리에서 행진했다. 이번 투쟁이 시작된 이래 아마 가장 큰 규모일 것이다.

북부 항구도시 르아브르에서는 약 6만 명이 시위를 시작할 때, 전력 노동자들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끊었다.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전술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에 공개적으로 맞서는 행동이었다.

마크롱은 이를 “폭력 행위이자 일부 과격한 봉쇄 전술”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가담자 엄단”을 공언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투쟁에서 비교



사진 출처 F. Blanc

1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행진이 벌어졌다

적 작은 구실을 했지만 시험 기간이 끝나면서 전보다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간 투쟁에서 핵심적 구실을 해 온 일부 사람들은 전보다 뚜렷하게 더 단단해졌다.

주도력

철도와 파리고통공단 파업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현장 조합원 그룹은 점점 더 독립적으로 주도력을 발휘하고

장관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싸움을 주저하는] 노조 지도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파업 교사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투쟁이 매우 오래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철도에서요. 이제 와서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조 지도부는 굴복하거나 투쟁을 끝까지 사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파업 노동자들이 소속 노조를 가리지 않고 단결하다니 정말 대단

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져야 합니다. 또한 노란조끼 운동의 기운을 더 많이 빨아들여야 합니다.”

노조 기층이 정치적으로 꿈틀거린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는 프랑스민주노동자총연맹(CFDT)의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증을 찢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지도부가 투쟁에서 물러선 것에 분노하고 있다.

기술자인 프랑 뷔농니는 이렇게 설

명했다. “CFDT 지도부와와 전투와 마크롱과의 전투가 하나의 투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합증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파업 노동자는 CFDT 지도부자들을 “배신자”라고 맹비난하며 “노조를 떠나겠다”고 했다.

더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분위기도 있다. “출근하고 일만 하다 무덤에 묻히는 삶을 거부한다”는 가장 인기 있는 구호 중 하나다.

중요한 문제는 다음 행동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1월 24일 집중 행동의 날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단발적 행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무기한 총파업이 뒤따라야 한다.

1월 24일에 집중 행동이 벌어진 이유는 연금 개악안이 내각에 상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2월 17일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다.

“우리의 투지는 변함 없습니다.” 노총 ‘노동자의 힘(FO)’ 이브 베리에 위원장은 파리 행진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몇 주, 몇 달 동안 항의 시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4개의 노총과 4개의 대학생·고등학생 연합은 1월 29일을 8번째 집중 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이를 발판으로 더 지속적인 파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89호 / 번역 김지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EU 무역전쟁과 새우등 터지는 영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중국과 미국이 지난 2년간 벌인 무역전쟁에서 휴전에 합의했다. 1월 15일에 양국은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갈등, 즉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경제’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품은 것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두 국가는 평균적으로 약 20퍼센트의 관세를 상대방의 수출품에 여전히 부과하는데, 이는 분쟁 전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운 무역전쟁의 조짐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다. 22일 도널드 트럼프는 다보

스에서 열린 [정부와 다국적 기업 대표자들의 모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이렇게 불평했다.

“(유럽연합에는) 무역을 할 수 없는 부문을 지정한 무역장벽이 있고, 관세도 이곳저곳에 부과한다.

“솔직히 말해, 유럽연합에서는 중국보다도 사업하기 더 어렵다.”

트럼프는 미국에 수출되는 독일 자동차들에 특별히 집착해, 여기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꾸준히 위협해 왔다.

[미국 외교 전문 잡지] 《포린 폴리시》에 최근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은 이랬다. “유럽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에서 새 전선이 되다”

그리고 트럼프의 말이 맞다. 무역에 있어 유럽연합은 까칠한 상대다. 유럽 통합이 성공한 진정한 비결은 거대한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유럽연합 지배자들이 만든 규제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그 시장에 접근하려면 비(非)유럽 기업들도 그 규제를 준수해야만 한다. 트럼프 정부가 분개하는 건 바로 그 대목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서 유럽연합이 주되게 신경 쓰는 것은 영국이 탈퇴 후에도 그 규제를 따르도

록 하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영국을 규제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른다.

유럽연합은 영국과의 FTA 협상에서 영국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추거나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만일 영국 기업들이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여기면 영국을 응징할 권리[즉각적인 보복성 무역 제재에 나설 권리를 요구한다.

무르익는

사정이 웃기게 된 것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무르익는 무역전쟁에서 영국이 최선봉에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과 [세계경제포럼이 열린] 다보스에서 만나 11월 미국 대선 전에 유럽연합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리라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프랑스가 농산물 수입에 대한 협상을 일절 거부하기 때문에 공산품 무역에 관한 논의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1950년대 이래로 역대 프랑스 정부들의 주요 우선순위에는 자국

농부들을 국제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면 상황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디지털세(稅)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미국 IT 대기업(페이스북, 구글 등)에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이 기업들은 그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지만 조세도피처에 적을 두고 있어 세금 부담을 피하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은 영국의 디지털세 계획에 관해 이렇게 대꾸했다. “만약 누군가 우리 디지털 기업들에 세금을 임의로 부과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자동차 기업들에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미 므누신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의 수출품 18억 유로어치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간 미국이 으스스대는 것에 줄곧 불명해 왔던 프랑스가 굴복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 메르와 므누신은 곧장 세금·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해 보기로 했다.

세계 나온 곳은 영국이었다. 영국 정부는 “세금 문제는 우리 고유 권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집권] 보수당이 미국보다 유럽 연합과의 무역협정을 더 중시하기로 결정한 것이 반영된 듯하다.

미국은 [단일국가로는] 영국의 최대 교역 상대이고 영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전체는] 45퍼센트나 차지한다.

26일에는 또다시 불꽃이 일었다.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는 유럽연합이 탄소세를 도입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갈등은 단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IT 대기업들은 미국 자본주의의 선봉에 서 있고, 트럼프는 그 기업 사장들과의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 그 기업들을 방어하려 한다.

저마다 고유한 무역 규정 체제를 갖고 있는 세 무역 블록, 즉 유럽연합·미국·중국 사이의 쟁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영국 같은 작은 국가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기 십상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89호 / 번역 김중환

오늘의 주제는 세계를 변화시킬 노동계급 잠재력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아니라 이곳[런던]에서 아주 가깝고 또 이곳과 비슷한 곳에서 그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는 사건에 관

운동의 규모

먼저 투쟁의 규모를 봅시다. 한 달 동안 130만~150만 명가량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참가자 다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파업 중이었지만 또 아닌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금 계약에 반대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계약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프랑스의 핵심 산업인 국영 철도 회사 SNCF와 파리대중교통서비스 RATP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12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이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프랑스 역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입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벌어진 매우 중요한 파업들인 1995년 대파업이나 1986~1987년 파업보다도 길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중인 건 아닙니다. 프랑스의 공식 노동조합 조직물은 영국보다 한참 낡습니다. 그럼에도 12월 5일 뒤로 기관사와 관제사처럼 철도 운영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사람 중 40~60퍼센트는 계속 파업 중이고, 때때로 파업 참가율이 더 오르기도 합니다.

파리 지하철은 14개 노선 중 겨우 한두 노선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노선은 사실상 자동 무인 노선 두 곳뿐입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절대 자동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네요.(웃음)

그러나 그밖에도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사들도 파업에 나섰습니다. 보건 노동자들도 파업 중인데, 그들은 그동안 자주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 밖에도 소방관, 우체국 노동자, 청소 노동자, 공무원, 정유소 노동자, 발전 노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편이 이기고 프랑스 사회가 변하는 것으로 이번 투쟁이 결말을 맺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몇 주 동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크게 주목할 만합니다.

동자 등등 많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파업을 했는데, 파리 오페라 극장의 무용수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번 운동의 아이콘처럼 부각됐는데, 아무래도 퍼켓라인을 지키는 [대체인력 저지 행동] 노동자들이 <백조의 호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으면 다른 부문, 예컨대 석유 노동자들보다 당연히 더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웃음) 물론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라는 관점에서는 석유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더 클 테지만 파리 오페라 극장 무용수들도 함께 파업한다는 것은 매우 감명 깊습니다.

정부가 일부 양보하겠다고 했는데도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려던 계획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철회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보통의 운동이었다면, 이 정도 양보안을 받아들이고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저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 수 없는 다른 계약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경찰관들만이 정부의 양보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부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일 예정이지만, 노동자들을 따라잡고 지난 1년간 노란조끼 시위대에 몸통이를 휘두른 경찰은 예외다.”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정부 양보안을 수용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프랑스에서는 대단한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12월 5일 이래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고, 100만 명 넘는 거리 시위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아주 높은 수준의 저항 각오, 회열, 마크롱에 맞선 굳센 단결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파업

노동계급은 어떻게 반격에 나서고 있는가

다음은 1월 15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당 중앙위원이자 기관지 편집자이자 공동사무국장인 **찰리 김버**(아래 사진)가 발제한 내용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것이다.

노란조끼 운동의 영향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대단히 희망적인 것인데, 바로 이번 운동에 앞서 치러졌던 2017년 [프랑스] 대선은 좌파에게 완전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가 치른 영국 총선보다도 더 참담한 대선이었습니니다.

2017년 대선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좌파 후보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의 장뤼크 멜랑송으로, 26퍼센트 득표했습니다. 사회당/주류 사회민주주의의 정당인 6퍼센트를 득표해 5위에 그쳤습니다.

대선 결선은 유럽 전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치켜세운 마크롱과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라살트프랑 나시오날]의 당대표 마린 르펜. 이 둘을 놓고 치러졌습니다. 좌파가 선거에서 지독하게 주춤했다는 점에서 끔찍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운동을 보면, 선거만 보고 향후 몇 년 동안 벌어질 일을 예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8개월이 채 되지 않아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운동이 부상했습니다.

노란조끼 운동이 초기에 매우 모순돼 그 안에 서로 충돌하는 사상들이 많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현직조합원들이 높은 수준의 주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노조 4곳이 한데 모여 모임을 했습니다. 또, 지도부의 지침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를 압박하고 때때로 홍콩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의 양은 홍콩 경찰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홍콩 시위대에 대한 탄압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지만 프랑스에서는 더 끔찍했던 것입니다. 수십 명이 시위집안용 고무공 “플래시볼”에 맞아 실명했습니다. 플래시볼 때문에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6명이나 됩니다. 시위 와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류 언론 보도에서는 폭풍 숨겨져서 이런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많이들 모릅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특징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파업들과 시위들은 바로 이런 노란조끼 운동에 뒤이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파업과 시위는 여느 노동조합 투쟁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직조합원들이 높은 수준의 주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노조 4곳이 한데 모여 모임을 했습니다. 또, 지도부의 지침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를 압박하고 때때로 홍콩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의 양은 홍콩 경찰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홍콩 시위대에 대한 탄압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지만 프랑스에서는 더 끔찍했던 것입니다. 수십 명이 시위집안용 고무공 “플래시볼”에 맞아 실명했습니다. 플래시볼 때문에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6명이나 됩니다. 시위 와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류 언론 보도에서는 폭풍 숨겨져서 이런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많이들 모릅니다.

둘째, 이번 파업은 노조 4곳이 한데 모여 모임을 했습니다. 또, 지도부의 지침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를 압박하고 때때로 홍콩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의 양은 홍콩 경찰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홍콩 시위대에 대한 탄압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지만 프랑스에서는 더 끔찍했던 것입니다. 수십 명이 시위집안용 고무공 “플래시볼”에 맞아 실명했습니다. 플래시볼 때문에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6명이나 됩니다. 시위 와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류 언론 보도에서는 폭풍 숨겨져서 이런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많이들 모릅니다.

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모든 이들이 같은 구조를 외쳤다. ‘정부와 협상은 없다. 파업 투쟁을 계속 이어가자.’ 거의 만장일치로 이런 주장이 통과됐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것이 어느 특정 노조 조직의 집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역에 조합원이 있는 노조 4곳이 한데 모여 모임을 했습니다. 또, 지도부의 지침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를 압박하고 때때로 홍콩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의 양은 홍콩 경찰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홍콩 시위대에 대한 탄압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지만 프랑스에서는 더 끔찍했던 것입니다. 수십 명이 시위집안용 고무공 “플래시볼”에 맞아 실명했습니다. 플래시볼 때문에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6명이나 됩니다. 시위 와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류 언론 보도에서는 폭풍 숨겨져서 이런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많이들 모릅니다.

이 파업을 이끄는 것은 우리이고, 우리는 단결해 있고, 이 파업을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노조의 일상적 조직을 통하기보다는 우리만

의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 것이다.’ 매우 급진적입니다.

여기 또 다른 보도가 있습니다.

“투르 시에서 교사 200명이 참가한 한 집회에서는 ‘파업 연장 제안을 환영하고, 다른 단체들도 파업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며, 노란조끼 운동과 함께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12월 12일에는 도시 트라브르와 주변의 대규모 공단이 완전히 봉쇄됐다. 이 도시 노동자들의 총회와 노조간 조율을 기구가 이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들은 중요한 변화를 보여 줍니다. 파업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층 지도부가 결정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스스로, 그리고 파업 중인 다른 노동자 집단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합니다. 기층에서 노동자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변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파업 중인 발전 노동자들은 발전소를 가동합니다. 이들은 특히 자기네 사용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한편,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는 정치적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보도를 보십시오:

“보르도 시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 노동자들은 이케아, 식료품 유통센터 리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인 씨디스카운트의 물류센터, 버스터미널 등으로 가는 전력을 차단했다. 노동자들은 이처럼 대기업들의 전력을 끊은 반면, 8만 명을 오프 피크 요금제[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물리는 저가 요금제]로 돌렸는데, 그 덕에 사람들의 전기세가 크게 줄었다.

“노동총동맹(CGT) 조합원 바스티앙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부자들의 전력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변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파업 중인 발전 노동자들은 발전소를 가동합니다. 이들은 특히 자기네 사용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한편,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는 정치적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보도를 보십시오:

“보르도 시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 노동자들은 이케아, 식료품 유통센터 리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인 씨디스카운트의 물류센터, 버스터미널 등으로 가는 전력을 차단했다. 노동자들은 이처럼 대기업들의 전력을 끊은 반면, 8만 명을 오프 피크 요금제[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물리는 저가 요금제]로 돌렸는데, 그 덕에 사람들의 전기세가 크게 줄었다.

“노동총동맹(CGT) 조합원 바스티앙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부자들의 전력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마지막 발언은 정말 대단합니다! 전기를 누구에게 공급하고 차단할지를 다룬다면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파리 교외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의 전기가 끊겨서 문이 닫혔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새로 설치한 전기계량기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행 계량기들은 전기요금에 체납되면 전기를 끊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곳 영국에서 전기요금에 체납되면 돈을 먼저 납부한 후 일석로 잠금을 풀어야만 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인 것이죠.

그 노동자들은 “가난 탓에 크리스마스에 촛불을 켜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대단히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들과 시위대가 함께하는 대규모 운동이 벌어지고, 노조의 기층에서 민주주의 요소들이 발전하고, 거기에 더해 파업 노동자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것이 소비에트, 즉 노동자평의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파업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면 노동자들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저항의 역사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좀 더 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1990년대 이래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판 마거릿 대처가 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어떤 변화를 낳았는지를 보고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없애 버리고 연금 받을 자격을 더 엄격하게 하고 프랑스 자본주의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노동조합들의 힘을 분쇄하고 노동자들을 굴복시켜야 한다.’

1995년에 이런 공격이 처음으로 만만찮게 벌어졌는데, 알랭 쥐페[당시 프랑스 총리]가 나섰습니다. 그는 연금을 개혁하려 했다가 대규모 파업에 직면했는데 여러 점에서 지금과 비슷했습니다.(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철도 노동자, 우체국 노동자 등이 서로 연대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대단히 큰 운동이었고, 당시에도 지역위원회가 꾸려졌고, 이 위원회들이 서로 소통하고 행동을 조율했습니다. 대규모 시위도 여럿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취재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80만 명이 시위에 나왔다고 쓴 기억이 납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커다란 집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때보다 더 큰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순 없지만, 노조를 겨냥한 첫 번째 만만찮은 공격이었음에도 결국 알랭 쥐페가 패배해 후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계약안의 일부 조항을 양보했고, 그러다 더 많이 양보했고 결국 연금 개혁 구상을 통째로 거둬들이야 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연금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정유했던 것인데, 그들이 [나치 독일 점령군에 맞선] 레지스탕스에서 아주 중대한 구실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파리 오페라 극장 무용수들의 연금은 17세기에 처음 도입됐고 그 이래로 무용수들은 이를 지켜왔습니다. 60대가 25세처럼 출출 수 없다는 명백한 이유 때문이어서 그들의 구상대로라면 모든 노동자들이 64세에 은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크롱이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노동자들의 은퇴 연령 기준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 합니다. 그의 구상대로라면 모든 노동자들이 64세에 은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연금을 받으려면 많은 노동자들이 65~67세까지 일해야 합니다.

마크롱은 ‘점수 기반 연금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노동자들이 일하는 동안 점수를 쌓고 그 점수만큼 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점수당 금액을 중간에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

제도 마거릿 대처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계약을 밀어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도 일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나빠졌지만, 지배계급이 바랐던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크롱의 공격은 이런 흐름의 최신 국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앞서 거명한 인물들보다 더 만만찮게 대비고 있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중재 기구들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경멸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평온한 협상으로 얻어 낼 수 있다고 조금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노동계급 운동과 정면으로 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성과를 일부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8년, 연금 개혁을 놓고 벌어진 철도 파업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는 노조법을 개혁했고, 일부 수당을 없앴고, 일터에서의 권리를 제약했습니다. 마크롱이 항상 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대단히 큰 공격에 나섰습니다. 바로 프랑스 노동자들이 금과요옥로 여기는 연금을 겨냥한 것입니다.

연금 개혁

기존 연금 체계 하에서는,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들이 62세에 은퇴합니다. 이는 프랑스인들이 영국인들보다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영국인들보다 더 일찍 은퇴하고 더 나은 연금 제도를 누립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62세 이전에 은퇴합니다. 약 100만 명 정도가 그에 해당하는데, 공무원, 철도 노동자, 지하철 노동자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노동이 더 고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조건을 정취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이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노동자들의 은퇴 연령 기준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 합니다. 그의 구상대로라면 모든 노동자들이 64세에 은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연금을 받으려면 많은 노동자들이 65~67세까지 일해야 합니다.

마크롱은 ‘점수 기반 연금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노동자들이 일하는 동안 점수를 쌓고 그 점수만큼 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점수당 금액을 중간에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

▶ 7면에서 이어짐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노동자는 자기 연금이 주당 200유로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부가 ‘아냐, 150유로밖에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과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정부가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또한 철도 노동자와 지하철 노동자 등에 적용됐던 특별 규정도 모조리 없애 버리려 합니다.

또한 연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개악하려 합니다. 현행 제도는 전체 납입 기간 중 가장 임금이 높았던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마크롱은 이를 고쳐서 전체 납입 기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아주 저임

금만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금 금액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크롱은 유럽 곳곳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했던 전형적인 연금 개악, 즉 더 오래 일하지만 연금은 덜 받도록 개악하려 합니다.

바로 이런 끔찍한 공격에 대응해서 지금 프랑스인들이 저항에 나선 것입니다. 마크롱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단단히 갖추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이번 연금 개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패배하면 그가 추진하려는 다른 신자유주의 정책들도 모조리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배계급이 노리는 바입니다. 노동계급의 힘을 꺾으려는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전보다 더 많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노란조끼처럼 하자”

그러면 우리 편은 어떨까요? 어떻게 우리 편은 지금처럼 대단한 수준으로 투쟁할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만의 뭔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 투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오랫동안 생활수준이 개선되지 못했고, 불평등은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벌어졌고, 그에 대한 반감이 자랐습니다. 프랑스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상층의 소수 엘리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금융 위기 이후 생활 수준이 거의 나아지지 못했거나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감이 큼니다.

그러나 반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점에서 노란조끼 운동이 한 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란조끼 운동은 펼쳐 일어나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게다가 노란조끼 운동은 과거의 저항 운동들이 따랐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 운동이 “노란조끼처럼 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바로 노조 지도자들이 지침 내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 나와 같은 노조인지 아닌지 경직되게 가를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같은 산업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노동자들은 그런 구분을 넘어서 더 광범한 쟁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슬로건입니다. 노란조끼 운동에서 초기 정치적 토론과

열띤 논쟁을 거쳐서 등장한 슬로건 하나는 “이달의 끝, 이 세계의 끝”입니다. 무슨 뜻이나 하면, ‘우리가 받은 임금으로 이달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계의 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란조끼 운동을 촉발한 것은 [보조금 삭감으로] 유가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시위는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벌이는 것이다’ 하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누구 못지않게 기후변화도 우려한다는 것이 드러났고 구호의 뒷부분은 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기후위기

이렇듯 아주 계급적인 요구(“우리의 임금과 연금이 이달 말까지 남아 있을까?”)가 기후위기 문제와 결합이 돼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호, “우리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구호도 노란조끼 운동에서 처음 제기돼 연금 개악 반대 운동으로 확산된 경우입니다.

연금 파업에 관한 많은 온라인 토론에서 흔히 나오는 단어가 “생존”입니다. 이들에게 “생존”은 ‘내 연금이 충분할까?’, ‘내가 일을 그만둔 뒤에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과 나란히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런 세계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금 파업에서 감명 깊은 것은 파업 노동자들이 노란조끼 운동, 환경단체, 여성단체, 학생단체 등등 프랑스 사회의 각종 시위대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 파업은 프랑스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모든 분노와 저항을 모아내는 파괴침 구실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전에 노란조끼 운동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노란조끼 운동과 노동계급의 힘이 결합된 덕분에 지금의 운동이 그토록 대단하고, 급진적이고, 그래서 지배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사관을 따라 우리의 분노가 흐른다!” 파업에 동참한 프랑스 구급대원들

운동의 정치

그렇다면 이 운동의 정치는 어떻게요? 첫째, 프랑스 노조 지도자들은 영국의 노조 지도자들이 할 법한 일에 똑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투지를 때때로 고무하지만, 동시에 정부와의 협상을 모색합니다.

실제로, 가장 큰 노총 중 하나인 프랑스민주노동자총연맹(CFDT)은 늘 그랬듯 운동을 지지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그 지도부는 자신이 정부의 사회적 동반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크롱과 협상을 타결할 태세가 돼 있습니다.

전국자율노조연맹(UNSA)은 크리스마스 때 철도 파업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지도부는 이를 관철시키려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휴전을 해야 한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람들이 부모님 등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만큼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파업을 멈추자.”

다행스럽게도 UNSA의 현장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은 “무슨 소리냐. 파업을 멈춰선 안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14개 지역에서 UNSA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결국 파업 중지 시도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래로부터 압력이 아니었다면 노조 지도자들이 파업을 끝내려 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좌파 정당들은 이 문제를 놓고 대체로 모호했습니다. 파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데 아주 굼뜬습니다.

극우 인사인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의 대표] 마린 르펜은 어떻게요? 그

에게 ‘파업을 지지한다’는 말은 감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럼에도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번 운동에는 뭔가 진지한 게 있다. 마크롱이 틀렸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번 대선에 출마해서 마크롱에 맞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래로부터 운동의 친구인 양 행세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 운동이 그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한참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제[1월 14일] 마린 르펜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동총연맹(CGT)과 그 위원장 필리프 마르티네스를 증오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는 이들을 대단히 증오한다.” 왜냐하면 파업이 너무 발전해서 어느덧 그 자신이나 그의 지지 기반인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급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간극

이렇듯 지금 프랑스에는 거대한 정치적 간극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간극만으로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나 새로운 정당,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 등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동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첫째 파업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것, 일부 부문의 파업으로는 충분치 않고 대다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 마크롱에 가하는 압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 노동자들은 분명 이길 수 있지만 그러려면 무기한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노동계급 전체의 저항의식과

단결을 담아 낼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의 맹아는 여러 파업들과 현장조합원들의 자체 행동에서, 그리고 그에 앞서 노란조끼 운동에서도 언뜻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혁명적 조직은 바로 그런 구실을 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또한 혁명적 조직은 그런 단결을 이루고자 운동 안에서 인종차별·성차별 등 각종 분열에 맞서고, 파업과 기후변화 문제를 결합시키고, 연금 이상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가 어떤 모습이고, 이를 어떻게 노동자의 힘과 저항을 통해 이룰 수 있는지 제시하는 조직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중요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그 운동은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보여 주는 동시에 혁명적인 정치 조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자본주의신당(NPA)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국제사회주의 경향동지들이 지난주에 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은 아름답다. 운동의 힘 앞에서 심판해서 말을 더듬는 장관들·의원들·신문 편집장들만큼이나 아름답다. 마크롱의 세계는 전경들로 에워싸인 기업인들만의 세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바로 그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지 시적이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세계를 바꿀 잠재력이 노동계급에 있고, 우리의 [혁명적인] 정치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유튜브 채널
 녹취 한가는 / 번역 김중환

잠재력과 동시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 르노삼성 파업

정선영

1월 23일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 사측이 1월 10일 직장 폐쇄를 한 지 보름 만이다.

노조는 1월 21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2월 14일까지 교섭이나 파업을 하지 않는 “평화기간”을 갖자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노동자들의 복귀를 허용했다.

물론, 파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재개될 임단협 협상은 녹록치 않을 수 있다. 협상장 바깥의 세력관계가 협상장 안의

지형을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이번 투쟁 과정에서 보여 준 상당한 분노와 투쟁 잠재력은 곱씹어볼 의의가 있다. 르노삼성 노동자 대부분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승리한 이후 분위기 속에서 처음 투쟁에 참가한 새 세대 노동자들이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해 상반기에 최장기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파업에 나서며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저력을 보여 줬다.

이에 대응해 사측이 직장폐쇄를 들고 나온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발전시킬 과제가 있다.

노동자들은 힘이 있다: 생산 타격 효과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임금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사측은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강요했다.

가령, 2018년에는 잔업·특근이 줄어 임금이 그 전해에 비해 무려 1100만~1400만 원이나 삭감됐다. 때해 ‘희망퇴직’을 실시해 5700여 명에 달했던 인력은 4000명가량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사측은 기본급을 2년 연속 동결하겠다고 나왔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젊은층의 시급을 억제하려고 ‘상여금 월별 쪼개기’도 원했다. 사실상 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에 분통을 터뜨리며 투쟁에 나섰다.

근래 노동운동 내에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투쟁을 경시·편협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위축시키는 악효과만 낼 것이다. 그러면 연관 부품사·하청 노동자들도 임금 요구를 내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점을 알기에, 〈노동자 연대〉는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이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지·연대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투쟁은 르노삼성에서 지난해 상반기 벌어진 파업에 비해 여러 모로 전진했다. 한 번의 투쟁 경험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번 투쟁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르노삼성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는 지난번 투쟁 때 8개월가량 1주일에 한두 차례 2~4시간 파업을 했었다. 노동자들은 최장기 파업으로 가능성을 보여 줬지만, 생산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뜨문뜨문 하는 파업으로는 생산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가 힘들었다. 파업 효과가 약한 가운데 투쟁이 길어지면서 파업 참가자도 점점 줄었다. 노조가 뒤늦

게 전면 파업에 나섰지만 사측의 직장폐쇄 공격에 가로막혔다.

이번에 노조는 더 효과적으로 사측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파업에 돌입했을 초기부터(지난해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면 파업을 해서 생산량이 30~40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사측이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파업 불참자들을 모아 일부 라인을 돌렸지만, 평소 생산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는 노조가 기습적으로 순환 파업을 하면서 파업 효과를 더 끌어올렸다. 한 개 라인이 멈춰도 공장 전체가 멈추는 컨베이어벨트 생산 방식을 이용해서 기습 순환 파업을 벌였다. 공장 가동률은 1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사측은 지난해 연말에 르노삼성의 QM6가 한국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중 판매 1위를 하며 연말연시 생산량을 늘려야 했고, 곧 출시되는 신차 XM3 생산도 시작해야 했다. 이런 조건에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커지자 사측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몰렸다.

이번 투쟁에서는 기층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해 파업 참가 호소 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체인력 투입에 맞선 효과적인 전술을 다룬 본지 기사 “피켓라인의 중요성”을 보고 한 노동자가 ‘우리도 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 대의원이 이런 제안을 민주적으로 받아 안았고, 실제 행동으로 조직했다.

도장공장에서 출근 시간에 팻말을 든 노동자들이 파업 참가 호소 활동을 했고, 이 행동은 다른 공정들로도 확대됐다. 이후 기습 순환 파업을 벌일 때도 노동자들이 “라인 투어” 행진을 하며 파업 참가 호소 활동을 벌였다. 노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이 같은 행동은 파업 대열의 결속력과 사기를 높였고 몇몇 노동자들의 파업 동참을 끌어냈다.



1월 16일 르노삼성 서울 본사 앞에서 열린 파업 집회

반복된 직장폐쇄, 다음번엔 어떻게?

이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이 효과를 발휘하자, 사측은 아비하게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파업 대열의 공장 출입을 막아 파업을 무력화하는 공격 방법이다. 파업 대열을 공장 밖으로 밀어내고, 대체인력과 파업 불참자 등을 모아 생산 라인을 가동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번 투쟁 때도 직장폐쇄를 단행해 효과를 봤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자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는데, 직장폐쇄 하루 만에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사측이 또다시 직장폐쇄 공격을 해 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경기 침체기 효과적인 투쟁 방법: 연대 모으기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보수 언론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파업 때문에 부산 지역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협박성 기사를 쏟아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주들이 웬만해선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강하게 달려든다. 이런 조건에서는 노동자들도 투쟁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지지·연대를 광범하게 모아서 대응하는 게 승리로 나아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비롯해 주요 노동운동 단체들이 르노삼성 투쟁에 지지를 표명하고 연대를 건설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기업주들과 보수 언론, 권력자들이 한 데 힘을 합쳐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는 만큼, 이에 맞서 노동계급의 연대도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에 노조는 직장폐쇄 공격에 바로 무릎 꿇지 않고 열마일 파업을 지속했다. 두 차례 서울 본사 앞 집회와 부산시청 앞 집회도 했다.

그럼에도 파업 노동자들이 일단 공장 밖으로 밀려나자 불리한 처지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주간조로 모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공장을 가동했다. 게다가 잔업, 특근을 늘리거나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는 협박을 하며 파업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은 직장폐쇄 공격에 처했을 때 공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공장을 점

거하는 점거파업 전술을 사용했다. 직장폐쇄가 감지되거나 공고되면 그 즉시 노동자들이 일하던 자리에서 연좌를 시작해 생산 시설을 장악해야 생산 타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장 점거파업을 하면 사측과 보수 언론이 “불법” 운운하며 비난하겠지만, 사측의 파업 파괴 행위야말로 부당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로 연대의 초점을 만들면, 이런 비난에 함께 맞서며 르노삼성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늘어날 수 있다.

본지는 이런 점을 들어 지난번 투쟁 때 이미 직장폐쇄 공격에 공장 점거로 맞서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가능성은 있었다. 파업 초기에 좌파 활동가들이 발의해 현대중공업 분과동지연대회의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현장활동가 조직들(노동자의 힘, 더불어 한길노,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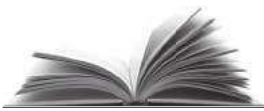
르노삼성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연대의 바람이 적지 않았다. 노조 지도부가 집회 연단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함께 연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노동자들은 환영의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투쟁” 하고 답하기도 했다.

르노삼성의 일부 활동가들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노조 내 일부의 반대 목소리를 경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조 내 분열을 우려하다가 더 큰 단결을 건설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광범한 연

대 건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측을 더 크게 압박할 수 있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학교”라는 말처럼,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이번 투쟁 속에서 의식과 경험이 성장했다. “이번 투쟁을 거치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노동운동의 토양이 생긴 것 같습니다.”(이정덕 르노삼성자동차노조 대의원)

이번 투쟁 경험이 다음 투쟁이 한 발 전진하는 밑거름이 되려면, 활동가들이 투쟁의 교훈을 잘 돌아보고 앞으로의 실천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전술을 제대로 실행하고 연대를 전진시키려면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투쟁하는 혁명적 좌파가 미리 현장에 조직돼야 할 필요도 있다.



서평 |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아이들은 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나

양효영

이 책은 ‘사라진 아이들’에 관한 얘기다.

2017년 LG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제주도 음료회사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이민호 군이 프레스기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군도 현장실습생으로 취직한 노동자였다.

저자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는 이 아이들의 죽음을 관통하는 배경을 추적해 나간다. 저자는 이 죽음에 열악한 노동조건과 뿌리 깊은 차별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허환주 기자는 《현대조선잔혹사》의 저자로 조선업 산재 문제를 생생하게 다룬 바 있다. 이번 책에서도 현장실습생들의 숨결이 느껴진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드러내 담담하지만 강렬하게 현실을 고발한다.

이 책은 현장실습생 제도가 ‘현장 학습’이라는 명목을 피지만, 실제로는 기업주들이 고등학생 청년들을 저임금에 부려먹는 제도라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사망한 홍수연 양은 콜센터 해지 ‘방어’ 부서에서 일했다. 불만을 품고 해지하려는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다 보니 감정 소모가 극심했다. 게다가 실적 압박도 엄청났다. 관리자들의 압박으로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었다.

홍수연 양이 사망하기 3년 전, 해당 부서의 30살 상담사가 비인간적 실태를 폭로하며 자살한 일도 있었다. 18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에게는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졌을까.

차갑고 어두운 저수지에 몸을 던지기 전 어느 날, 홍수연 양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나 진짜 죽겠다. 죽고 싶다. 더는 못 견디겠어. 고객들이 애미 애미 운운하며 쌍욕 하는 것도 힘들고, 계약 해지를 막아야 하는데 잘 못한다고 위에서 갈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롯데리아

홍수연 양의 비극은 현장 실습 제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 준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들은 늘어나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대학 ‘과잉’ 진학에 있다고 보고 대학 구조조정과 고졸 취업을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진 않고 일부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면서 열악한 일자리로 밀어넣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추진하며 직업계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을 아우르는 말)를 크게 확대했다.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이명박의 말과 달리,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더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넣었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의 직업계고 정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 현장실습생 이야기 —

허환주 지음, 후마니타스, 256쪽

책의 요체는 ‘차등’과 ‘차별’이었다고 지적한다. 마이스터고 같은 상위 직업계고에 예산을 몰아주고, 나머지 일반 특성화고는 취업률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고, 목표치 미달 학교는 통폐합시키는 방식을 추진했다.

이런 경쟁 강화는 박근혜 정부 때로 이어졌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현장실습제도를 더욱 확대했다. 3학년 2학기에는 할 수 있었던 현장실습을 2학년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당국들은 취업이 잘 되는 학교, ‘뿔’만 한 아이들에게 관심과 예산을 몰아주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차별한다.

또한 어떻게든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아이들을 “푸시맨”처럼 취업으로 밀어넣는다. 일자리의 질, 학생의 전공은 뒷전으로 밀린다.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계 없는 곳으로 취업한다. 홍수연 양은 콜센터와 아무 상관없는 애완동물학을 전공했다. 이민호 군도 마찬가지로 음료제조와 관계없는 원예과를 전공했다.

“2012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취업을 많이 한 곳은 롯데리아와 군부사관(직업군인)이었다”는 조사는 취업률에 목맨 직업계고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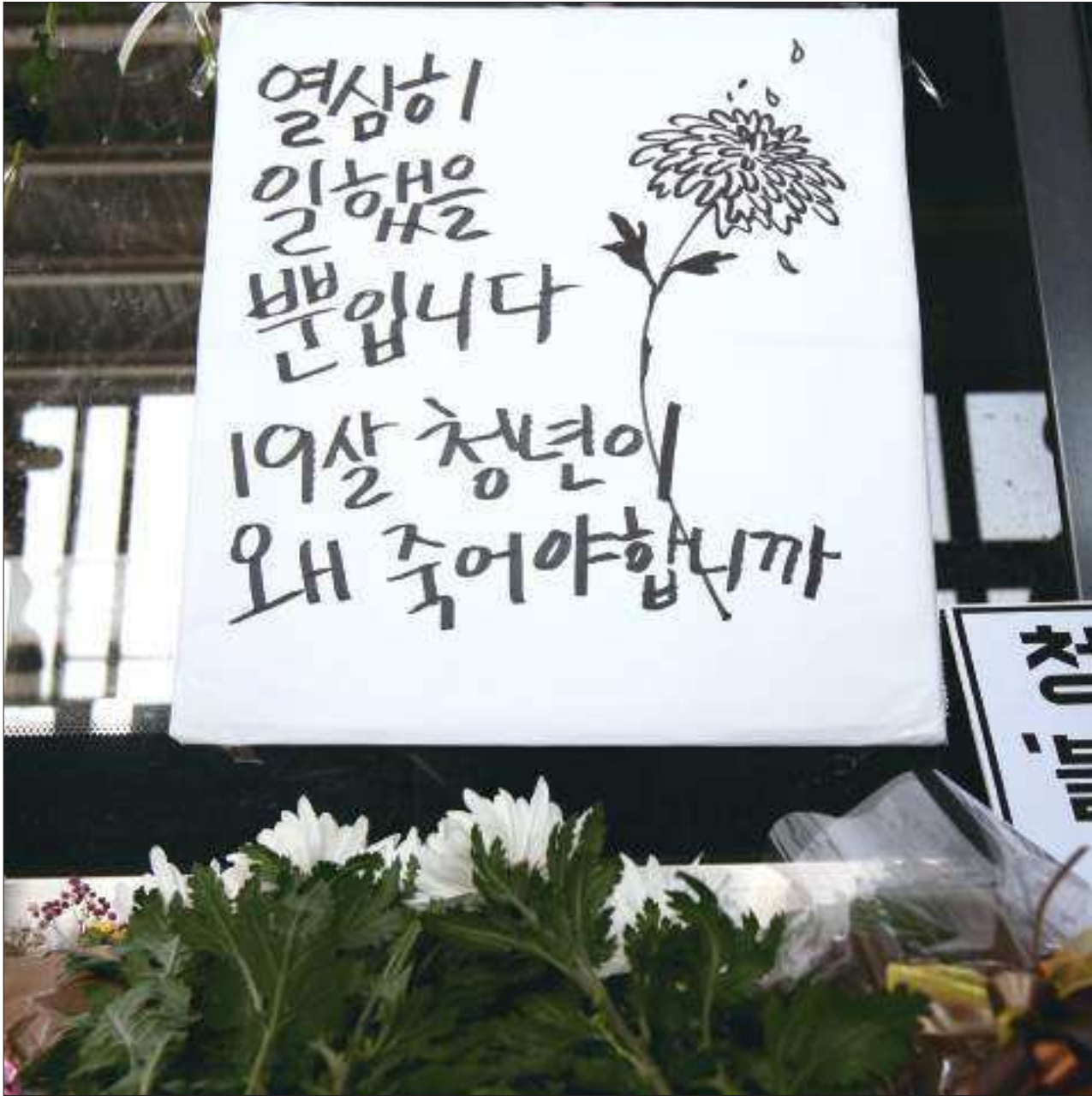
한 특성화고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담임 선생님’이 취업을 주선해 줬는데, 알고 보니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였어요. 저한테는 그런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죠.”

배움은 없고 위험은 도사리는

많은 현장실습생들이 배움은 없고 위험은 도사리는 작업장으로 투입된다.

교육청이 2016년 하반기 서울시 도제학교 10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학교에서 받는 실습교육 내용과 사업체에서 받는 교육 훈련이 연관성 없다는 응답이 43.8퍼센트나 됐다.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취직했더니 잡무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일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65.8퍼센트나 됐다.

기업들은 값싸게 사람이 필요할 때



구의역 김 군을 추모하는 메시지 정부와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쥐어짜여 온 현장실습생, 고졸 청년 노동자

직업계고에 손을 뻗곤 한다.

“은행 전산기기 수리하는 업체라고 들었는데, 가서 한 거라고는 발로 뛰는 것뿐이었어요 … 그냥 그 업체는 기계 점검하는 5일짜리 단기 알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사람이 없으니 학교를 통해 섭외한 거고, 재수 없게 제가 걸린 거죠.”

학교-학생-기업이 함께 ‘현장실습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노동조건을 정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막 대하는 건 기본이다.

한 특성화고 학생은 이렇게 말한다. “면접에서 사장이 한 달 월급이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 담임 선생님은 1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직원도 30명이라고 했는데, 그 절반 수준이었어요.”

“사장이 저를 포함해서 특성화고에서 온 애들 넷을 다 부르더니 ‘너희는 싸게 쓰려고 쓰는 거지, 큰돈 쓰게 될 거면 쓸 이유가 없다’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 황당했죠. 일은 일반 직원이라 똑같이 했는데 말예요.”

취업률 올리기 전쟁터가 된 학교는 학생에게 냉담하고 가혹하다. 힘들어서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이런 것도 못 견디는 XX”라는 말이 돌아온다. ‘복교생’을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도록 하면서 ‘본보기’를 만들거나 공공연하게 ‘패배자’로 낙인 찍는다.

일선 직업계고 교사들도 부담과 자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학생 취업을 앞선하려고 ‘영업사원’처럼

기업을 찾아다닌다. 2017년 한 공업고등학교 교사가 기업 유치 업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일도 벌어졌다.

더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고졸 청년들

이 책은 현장실습생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의 현실도 조명한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받는 일상적인 차별(대학교 안 나오고 뭐했냐 등)부터 구직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괴감 등.

상위권 특성화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편차는 일자리를 얻은 극소수의 경우에도 대졸과의 임금 격차와 은근한 차별을 느끼며 좌절한다.

전반적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좋은 일자리 취직이 하늘에 별 따기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졸 청년들은 더욱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20~34세 고졸 청년의 평균임금은 184만 원으로 대졸의 228만 원보다 44만 원이나 적었다 … 임금이 적으니 이를 보충하기 위한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졸자는 주 40시간 초과 노동 비중이 54.1퍼센트로 대졸자의 37.7퍼센트보다 16.4퍼센트포인트 더 높았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 군도 끼니까지 걸러가며 일해야 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서 발견된 사발면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종일 끼니도 걸러가며 일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겁니다. 그 백 몇만 원

이 뭐라고 … 자기가 더 참으면 공기업 직원이 되리라 믿고 참은 듯합니다.”

제2의 구의역 김 군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 정책과 직업계고 정책도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을 없애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곧 이를 다시 허용했다.

2018년 교육부는 ‘혁신형 특성화고’를 제시했다. 직업계고가 신산업 분야 과목을 더 쉽게 신설할 수 있도록 학교 구조조정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 수요에 학교를 더욱 종속시키는 방향이다.

게다가 직업계고 취업률이 떨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비율 60퍼센트달성을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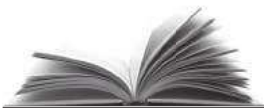
저자는 “이쯤 되면 기시감에 든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했던 직업계고 정책과 수치와 이름만 다를 뿐이다” 하고 씩씩하게 말한다.

이런 방향 속에서는 제2의 이민호 군, 홍수연 양, 구의역 김 군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현장실습으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청와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가치가 있다.

반복되는 청년들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고 싶은 사람들(특히 청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서평 | 《밀레니얼은 왜 가난한가》

세상이 “옛같은” 청년들을 위한 마르크스

양효영

언제부터 ‘청년’과 ‘미래’가 이렇게
암담한 느낌의 단어가 됐을까?

밀레니얼(현재 20~30대 청년)의 곤
궁한 삶은 익히 알려진 얘기다. 서구든
한국이든 많은 청년들이 임시직, 계약
직 일을 전전하며 “내 집”은커녕 그냥
집값이 생긴 곳에서도 살기 힘든 처지
다.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안정적 일
자리를 향해 끝까지 않을 것 같은 어두
운 터널을 걸어간다.

‘힐링’ 책, ‘동기 부여’ 글을 읽고 마음
을 다잡아도 이 잔인한 세상은 청년을
거둬 좌절시킨다.

이 책은 청년이 힘든 건 그들의 ‘노오
력’ 부족 탓이라는 시각에 대해 “개소
리”라고 일침을 날린다. “세상은 여러
분을 실망시켰고, 우리가 사는 시스템
이 붕괴되기 시작한 건 여러분의 잘못
이 아니다.” 우리 삶이 엉망진창인 건
자본주의 때문이다.

저자 헬렌 레이저는 오스트레일리
아 라디오 진행자 겸 저술가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다. 저자는 이 책을
“마르크스 맛보기”로 생각해 달라고
말한다. 부조리하고 엉망진창인 자본
주의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탈복
숭이 노인네”(마르크스)가 답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겨우 여덟 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절반이 가진 것보다 많은 부를
주무르는 세계, 10억 명이 굶주리는
세계, 기업에 세금을 낼 의무도, 유의
미한 고용을 창출할 의무도 면제해 주
는 세계, 이런 오늘의 세계를 사는 많
은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과 빈곤
의 근원을 묻는 질문에 마르크스의 사
회주의가 답을 해줄 수 있다.”

고통의 근원

저자는 마르크스의 핵심 주장들
에 대해 결결한 입담과 재치 있는 말로
풀어 나간다. 어려운 것 같다는 걱정일
랑 접어놔도 좋다.

계급의식은 ‘깊은 뻥침으로 얻은 깨
달음’이라고 비유하고, 지배자들이 자
본주의가 주는 고통을 부정할 때는 “내
다리에 오줌을 싸고는 비가 내리는 거
라고 우기지 말라”고 응수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겪는 온갖
문제들의 뿌리에는 자본주의라는 물
질적 토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고
매우 강조한다.

물론 자본주의는 눈부신 생산력의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이 “엄청나
게 빠른 속도가 대중을 향해 칼날을 겨



《밀레니얼은 왜 가난한가》

헬렌 레이저 지음, 강은지 옮김.
아날로그(글담), 268쪽

누고 많은 이들을 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극소수는 자본주의에서 막
대한 이윤을 얻고 있지만 대다수는 고
통에 빠져 있다.

저자는 만연한 실업, 불안정 노동의
확대, 인종차별, 성차별, 인터넷에 중
독된 ‘키보드 전사’, 경쟁심, 우울증까
지 온갖 사례를 들어서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보여 준다.

“우리 중 아주 소수만이 자본주의의
과실을 누릴 수 있다면 풍요와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던 말인가?”

게다가 자본주의는 치유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다. 그 위기는 자본주
의 그 자체의 “유전적 위험성”에서 기
인한다. 주기적인 공황, 이윤율의 저하
등은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벌어진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할 조건을 창출한다.”

저자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도전하
지 않은 채 개개인들의 의식만 바꾸려
는 시도들이 왜 계속 실패해 왔는지도
지적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나쁜 환
경이 나쁜 생각을 낳는다는 점을 잘 고
려하지 않는다.”

그 하나의 사례로 저자는 어떻게 트
럼프라는 “얼간이”가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 하는 물
음에 답한다. 그것은 미국 노동계급 대
다수가 갑자기 인종차별주의자가 돼
서가 아니었다.

지난 오바마 정부도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했고 수많은 사람들
을 실망시켰지만, 힐러리 클린턴과 그
녀를 지지한 미셸 오바마는 “미국은 이
미 위대하다”며 현실을 외면했다.

저자가 보기에 트럼프가 말한 “미국



밀레니얼의 ‘깊은 뻥침’에 “탈복숭이 노인네”가 답을 줄 수 있다

을 다시 위대하게” 선거 슬로건은 대
다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옛같다고
말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한 대다수는 “자신들의 삶에 위대
함이 결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한편, 차별 쟁점에서 물질적 토대를
간과하는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흥미롭다.

특히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들이 자
본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
는 문제들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비
판한다. 더 많은 여성이 기업주, CEO
자리로 올라가고, 그들이 만든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게 과연 대다수 여성들
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유리천장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최
고를 향한 등반은 암묵적으로 남아 있
다. 진정한 공산주의의 생산양식이 도
래해 집단적으로 조직을 소유하고 관
리할 때까지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리
는 언제나 소수의 것일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를 읽어라”

그렇다고 저자가 토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기계적 사고를 가지고 있
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저자는 상부구
조(사상, 법, 제도 등)와 토대(자본주의

착취 관계)가 상호작용한다고 강조한
다.

저자는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 “문
화적 차이에 관계 없이 99퍼센트 사람
들의 계급적 연대가 사회 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여기까지 흥미롭게 읽은 밀레니얼
이라면, 저자가 소련 같은 소위 ‘현실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보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소련에 대해서 “공산
주의 체제가 아니라 통제된 국가자본
주의 체제”였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청년들에게 이
렇게 꼭 당부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이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곤경이나 미래에 대한 고
민을 하느라 좀처럼 시간적 여유를 가
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이라
도 시간을 내서 마르크스를 읽어라. 이
것이 나의 유일한 권고다.”

이 책의 몇몇 부분은 다소 엄밀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조
금 거칠게 다뤄서 아쉬움도 남는다.(마
르크스주의와 그 여성해방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밀레니얼이라면 아래 필
자가 추천하는 책들을 읽어도 좋겠다)
그럼에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조
금 느낌이 올 것이다.

저자가 권유하는 것처럼 세상과 우
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탈복숭이 노인
네”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 보자.

더 읽을거리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
크리스 하먼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168쪽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왜 혁명인가
조셉 추나라, 찰리 킴버 지음.
정중수 옮김, 책갈피, 144쪽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주디스 오어 지음, 이장원 옮김.
책갈피, 440쪽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시/군/구까지)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3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전환 강요 말고 직접고용 하라

신문이 제작되고 있는 때에 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에 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물러서 2월 6일까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안을 내놓기로 했다. 노조는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2월 7일까지 협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이 제시한 안이 기존과 같은 내용이면 다시 투쟁을 이어 갈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이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1월 28일 파업을 했다. 1월 2일, 13일 부분 파업(대구 본사 소속 조합원 파업)에 이어 세 번째 파업이다. 1월 13일부터는 전국 지사 14곳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본사와 지사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1200여 명은 2년이 넘게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시간만 끌면서 자회사를 강요해 왔다. 자회사 채용을 정규직화라고 강변하는 정부 덕분에 사측은 지금까지 강경하게 버텼다.

지난 2년간 자회사 전환 실체는 채우 개선이 거의 되지 않고 여전히 용역과 다름 바 없는 저지라는 것이 폭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자회사 채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실망감을 넘어 이제 참담함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노한다.

1월 28일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사장실로 몰려가 면담에 나오라고 압박했다. 그동안 나 몰라라 하던 채희봉 사장이 면담 요구에 응했다. 사측은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물러서 2월 6일까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안을 내놓기로 했다. 노조는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사측이 제시한 안이 기존



1월 28일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로비에서 열린 파업출정식 집회

과 같은 내용이면 다시 투쟁을 이어 갈 계획이다.

그동안 사측은 “자회사로도 채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자회사를 종용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직접고용을 하면 정년을 60세로 하겠다며, 대량 해고를 원하지 않으면 자회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150여 명이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다. 정부조차 고령자 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권고 사항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다.

또 사측은 직접 고용하면 경쟁 채용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 일부 노동자는 전환 과정에서 해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년 동안 자신들의 업무를 문제없이 잘 수행해 온 만큼 직접 고용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협박에도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가스공사는 자회사에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하위임에 용역 회사로 전락시키는 구조조정을 한 전력이 있다. 자회사로 고용되면 다시 용역 회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노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회사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와] 자회사의 수의계약에 대해 특혜라고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입찰을 해야 하고, 입찰에서 떨어지면 회사가 통째로 없어질 수 있다. 직접고

용을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해고 없이 전환 채용을 하고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는 방식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연대

노동자들은 사측이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규직의 반대”를 내세우는 것에 분통을 터뜨린다. 그러나 그간 외주화를 밀어붙여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열악한 처우를 강요해 온 당사자는 사측이었다. 노조가 지적하듯이 “현재의 용역·파견 업무는 1997년 IMF 이전까지, 생산기지 소방대는 불과 몇 년 전까지 가스공사 정규직원 업무였다.”

사측이 정규직의 반대를 근거로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것이 위선인 이유다.

물론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정규직 임금을 억제하면서 비정규직 전환 비용을 정규직의 조건 악화로 메우게 하는 정책을 펴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한 것이 이런 반발을 낳게 한 근본 원인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반대는 사측만 이롭게 할 뿐이다.

외주화가 지속되고 노동자들 간에 차별이 유지되면 사측이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에 하향 압박을 가하기 수월해지기 마련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동시에 정규직의 조건도 공격받아온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옹게도 비정규직지부는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을 사유화, 민영화 해오던 과거를 바로잡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작”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 2곳 중 다수 노조이고 같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가스공사 지부가 이런 호소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이 나서 비정규직에 연대하고 노조 집행부에도 지지 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펴 나가야 한다.

사업장 밖에서도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자회사 정책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자회사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의 투쟁만으로는 직접고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보여 줬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들이 적극 나서 자회사 반대 등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강철구

2000명 감원 예고한 우체국 폐쇄 철회하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우편 부문 적자를 이유로 2023년까지 우체국 680곳을 없애려 한다. 당장 올해에만 서울 24곳, 경기·인천 28곳, 부산·울산·경남 29곳 등 전국에서 171곳을 폐국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이미 지방우정청들에 없앨 우체국 숫자를 구체적으로 할당했고, 올 상반기 안으로 폐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3월 우정본부는 우편 적자가 역대 최대라며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시간제 공무원 배치, 정규 집배원 증원 억제 등과 함께, 올해부터 우체국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해 전체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약속한 정규 집배인력 1000명 증원은 좌절됐다.

2014년에 대학 우체국 100여 곳이 사라지면서 정원이 1000명 넘게 줄었다. 이번에 우체국 680곳이 사라지면 정원 2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지는 우체국들은 동네 소규모

우체국일 것이다. 이러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우편과 금융)가 약화될 것이 뻔하다. 도심 지역에서는 대기시간이 증가할 것이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더 먼 거리를 오가야 한다.

지금도 우체국 창구 노동자들은 인력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동네 우체국을 보면, 창구 지원 분야는 결원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기 때문에 책상은 5개인데 2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체국이 줄어들면 창구 업무는 더욱 과중해질 수 있다.

그나마 공무원인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 배치되지만, 우체국 금융경비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질 것이다. 지난해 우체국 수련원들이 폐쇄되면서 비정규직 50여 명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다.

우정본부는 없앤 직영 우체국을 우편취급국(금융서비스 불가, 간단한 우편업무만 가능)으로 개편해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종의 민영화인 것이다. 당연히 위탁이 증가하면 그 일자리는 저질의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우정본부 자료를 보면, 우체국

680곳을 없앨 경우 비용 478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비용 절감, 수익성 증대 압박은 우체국 폐국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체국 폐국과 더불어 시간제 공무원 배치, 정규 집배원 증원 억제 같은 비용 절감 계획은 우체국 내 광범한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로 겨냥하고 있다.

이처럼 우정본부가 수익성에만 매달리게 되면 우편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후퇴시킨다. 우정본부는 우체국 폐국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신정환